

부실수사 드러나... 아내 살해 혐의 무기수 19년만에 재심

진도 저수지 살해 사건...대법, 유죄 입증 모든 간접증거 배척 사고차량 전인 날짜 조작·공문서 위조·국과수 부실감정 인정 9억여원 공동 수익자 보험 살해 동기 의문...판결 결과 주목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남편 A(66)씨가 19년만에 재심 법정에 서게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9일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방향으로 가던 중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졌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왔으나 아내의 숨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살해 용의자로 봤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교통사고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인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에게 수면제 2정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인 뒤 차를 저수지에 빠뜨리고 B씨를 차

량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숨지게 했다고 봤다. 법원도 A씨와 B씨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부부를 공동 수익자로 하는 보험액이 9억원에 달하는 점을 살인 증거로 판단했다. 차량 조수석 햇빛가리개 고정대를 조이는 볼트를 미리 빼 둔 점과 B씨의 부검 결과도 인용됐다. 결국, A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19년째 복역 중인 A씨는 최근 대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A씨의 유죄를 입증했던 간접 증거들을 사실상 모두 배척했다. 법원은 사고차량이 2003년 7월 10일 인양돼 16

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견인됐음에도 경찰이 작성일자를 15일자로 소급하는 등 허위 공문서(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기록에서 인양 당일 촬영된 사진과 국과수로 옮긴 이후 촬영된 사진을 비교하면, 국과수에 옮긴 이후 전장재가 더 내려앉아 있는 등 차량 파손 상태가 달라졌다는 A씨측의 주장도 인용했다. 오염된 증거라는 것이다. 사고 화물차 전면 유리도 내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 고정대 손상도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였지만 대법원은 부정했다. 애초 검찰은 "좌우측 햇빛가리개 고정대 분리와 전장 모서리 파손은 저수지 추락 후 화물차 전면 유리 이탈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살인 증거로 제시했다. 전면 유리가 물에 빠졌을 때 쉽게 차와 분리돼 물이 빨리 들어차 B씨를 익사시키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법감정이 나왔다. "(차량 설계 구조상) 햇빛가리개 등 전장 내장재의 분리와 전면 유리 결속력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03년 당시 화물차를 감정한 국과수 감정인은 감정결과를 철회했다. B씨 부검 감정서에는 소화되지 않은 캡슐 형태의 감기약이 검출됐을 뿐인데 1.2심 법원은 국과수 감정인의 의견만으로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해석했다. 법원은 "A씨가 사고 직전 약수터에 들러 감기약을 먹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 약독물 감정인이 '통상 수면제는 미량이며서 복용하더라도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한 사실을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다. B씨의 몸에 새겨진 흔적들도 유죄를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쓰였지만 모두 부인됐다. '수면제 복용을 조르는 등 압박을 했을 경우 점상출혈(일혈점) 등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감정인의 답변서 때문에 법원은 A씨가 B씨를 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A씨는 아내를 구호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척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슴 부위 압박흔은 긴급하게 이뤄진 심폐소생술 흔적일 수도 있다는 다른 감정인의 소견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A씨의 살인의 동기로 판단된 보험도 문제였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발생 1년여 전인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9건의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 9억3000만원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가입된 보험은 총 15건이고 3건을 제외하고 모두 6500원부터 3만 7000원에 달하는 소액이었다. 나머지 3건의 보험료는 6~11만원 사이다. 보험들은 교통사고 보장보다 만기에 환급받는 저축성보험에 집중돼 있었다는 것이 변호인측의 설명이다. 재심전문 변호사이자 A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의 국과수 감정결과를 발전된 최근 과학으로 깨뜨린 사안이다"면서 "이 사건은 과학의 이름을 빌린 선입견, 편견이 만든 비극인 것을 재심에서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설 앞두고 전통시장 안전 점검 설명회를 앞두고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시장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와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시장 내 화재·소방·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어린시절 썩어빠진 원망이 부른 참극

11살때 데려와 머슴처럼 뺨일...양아들이 아버지 살해

광주고법 항소 기각 징역 18년

고아였던 A(59)씨가 자신을 길러준 양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A씨는 고아원에 지내던 중 11살 때 B씨를 만났다. 여수의 섬 마을에 살면서 일손이 필요했던 B씨가 고아원에서 A씨와 다른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살게 한 것이다. A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머슴'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B씨의 뺨일도 거들었다. 하지만 B씨는 친자식은 학교에 보내면서도 A씨가 성인이 될 무렵까지 정규교육을 시키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하지 않았다.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A씨는 B씨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족으로 지냈다. 26살 무렵 결혼한 A씨는 독립해 수익원에 상당하는 선박을 보유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B씨의 일을 계속 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11월 24일 A씨는 자

신의 선박의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 오른팔을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때부터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B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지난해 2월 19일 오후 7시 20분께 B씨를 찾아가 배를 주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주기로 한 20년 전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다고 따졌다. B씨가 "이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안 기른갑다"고 말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8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시절 B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고는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 범행도구를 미리 소지한 점,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직자 맞아? ...마약 젤리 밀수입하다 덜미

광주세관 학원강사 등 검찰 송치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15일 국제우편으로 비타민과 영양제로 가장한 마약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성직자 A(56)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B(여·67)씨와 공모해 크

림·초콜릿·젤리 등 다양한 형태의 마약제품 411g을 커피와 비타민인 것으로 위장해 베트남과 미국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성직자인 A씨는 힐링센터에서 만난 마약류 밀수입 전과가 있는 B씨의 제안으로 마약 제품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본부세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B씨를

지명수배했다. 광주본부세관은 또 같은 혐의로 미국 국적 학원강사 C(여·2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의 한 영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C씨는 지난해 11월 마약 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서 국제택배로 밀수입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일부 마약 사용을 합법화한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마약 제품이 유통돼 국내에서도 해외직구로 밀수입하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아파트서 중학생 추락사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11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광주서부경찰은 15일 낮 12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14·중2)군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A군은 아파트 11층 공용부 계단에 있는 창문을 넘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A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니며, 추락 직전 친구와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지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동무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